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중인 원 탁 박정옥 선교사 소식을 전합니다.

더워진 날씨로 인해 지쳐 있을 모두를 기억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1. 랑행니밋 교회와 기숙사 소식입니다.

랑행니밋 교회와 기숙사도 5월 새학기를 맞이 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있던 벤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후에 사회로 나갔고, 짜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5섯명입니다. 야야(중1), 논(중1), 피피(중1), 령(중2), 뽀뽀(중2)가 들어와서 모두 14명의 학생들이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야는 따치(중3)의 여동생 입니다. 오빠 따치의 좋은 영향력으로 여동생도 교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야야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인 따치도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는 비기독교인 이였지만, 지금은 본인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논과 령은 기독교인입니다. 야야와 피피, 그리고 뽀뽀는 아직은 비기독교 인이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피(중1)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피피는 쉰텡 전도사님의 외사촌입니다. 현재 피피의 부모님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피피는 3형제의 막내인데, 큰 형이 마약을 하고, 둘째 형도 문제가 있어서 막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랑행니밋 교회내에 있는 기숙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피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피(중1)가 현재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2. 한국어 교육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어반에는 15-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진정성을 두고, 성경말씀 내용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쓰기와 읽기는 쉽게 접근을 하는데, 아직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한국어 짝공을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어 짝공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서로가 챙겨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 짝공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를 돌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짝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짝공의 효과는 생각보다 유익함이 많습니다.

3. 학생들의 예배 참여 소식입니다.



매주일 24-26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피아노, 기타, 드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순서 특별 찬양 시간에는 가끔 한국어로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선교사인 우리로서는 감동과 은혜가 두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기도해주세요.

- 1) 태국이 마약이 합법화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약을 멀리하고 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2) 랑행니밋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3)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네 자녀가 한국에서의 생활도 잘 적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03년 6월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원 탁 박정옥 선교사 올림